

총장 선거와 총선의 님은 점

장 하 진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과열, 혼탁, 상호비방으로 얼룩진 선거’. 이것은 이번에 치러진 총선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지성의 선거’인 대학에서 총장 선거가 끝난 다음 회자되는 일반적 공통적인 후평이다. 단지 어느 특정 대학에만 국한되는 평가가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에서부터 남도의 어느 대학에 이르기까지 예외적 상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나라 선거의 망국병이라 일컫는 지역감정, 학연, 지연은 대학 선거에서도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의 전당인 서울대학교 총장 선거는 후보 경쟁에서부터 주요 일간지의 기사로 취급된다. 그 선거의 예측 기사에서 나는 그 선거가 시중 선거와 하등 다를 바 없는 3류 선거문화 풍토 속에 치러지고 있는 서글픈 장면을 발견하게 된다. “‘경기고 출신’ ○○○ 후보와 ‘서울고 출신’ ○○○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고 출신’ 후보들의 연합 여부가 당락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식의 보도이다. 아니 한국 최고 지성의 상징인 서울대학교 교수들에 의한 총장 선거가 출신 고등학교에 의해 당락이 좌우되다니. 이 얼마나 괴이한 일인가? 교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30년은 흘렸을 것이고 그 지나간 세월 동안 학내의 인간관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변화했을 것이며, 학문적 지향과 학자로서의 관점에 따라 학파와 학풍과 정치적 지향은 또 얼마나 새로운 관계와 갈등을 가져다 주었을까?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인생관과, 학파와 대학의 비전보다도 더 깊은 끈으로 작용하며, 이 모든 것을 용해시켜 버릴 만큼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것이 바로 출신 고등학교란 말인가? 이번 서울대 총장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며, 그 상이한 계획과 비전은 교육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식의 보도는 기대할 수 없는가?

다른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이 지방 출신이 아니다’,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다’, ‘출신 대학별로 투표가 갈린다’라는 것이 총장 선거를 둘러싼 투표 행태의 분석이다. 그리고 화려한 공약과 합리적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지연, 학연으로 예측한 결과는 결코

빛나가지 않는다.

대학 민주화의 한 방법으로 현재 많은 대학에서는 교협의장, 학장, 총장 등을 교수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내에서 몇 번의 선거를 경험하면서 나는 시중 선거와 대학 선거의 차이점을 별로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두 선거의 공통점을 들어보라면, 다음 몇 개의 사항을 어렵지 않게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지망생들의 '적극적 자천'에 의해서만 후보가 될 수 있음이 공통점이다. 학자적 양식을 겸비한 겸손한 교수는 감히 후보의 대열에 낄 수조차 없다. 총장이나 학장의 자리는 자신이 하겠다고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덕망있는 교수가 추대에 의해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대학은 소위 '교황식' 선출 방식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능력과 덕망으로 추대에 의해 후보가 되는 예를 나는 거의 보지 못했다. 물밑 작전을 통한 치열한 경쟁 끝에 후보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운동 행태도 유사하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차기후보 지망자는 학내 경조사를 빠지지 않고 챙기며 직접 간접의 선심 공세를 퍼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연, 지연, 인맥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차후 선거의 기본조직이 되고, 투표 성향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 봉급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회식, 향응이 끊이지 않는다. 각 후보자들끼리의 2차, 3차전의 담합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보직'에 대한 흥정이 오고 간다. 인신공격성 루머, 상호비방의 행태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公約은 어디까지나 空約일 뿐이다. 후보자도 투표자도 공약에 의해 당락이 좌우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공약은 단지 선거기간의 장식용이며, 그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갖고 압력을 가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된다. 그리고 선거의 후유증은 비이성적 편가르기와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며 심지어는 보복과 등돌리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학의 발전과 새로운 과학과 이론 탐구와는 무관한 목적없는 소모전이 지속되어 간다.

선거 문화의 성숙도가 정치발전의 지표가 되듯이 총장 선거 역시 오늘의 한국 대학의 현 주소를 가늠하는 지표일 수도 있다. 총장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후진적 선거문화는 사실은 그대로 오늘날 한국 대학의 구조적 모순 자체를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즉, 교수 채용과정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적이고 부끄럽고 후진적인 양태들의 연장선상에서 총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이 학연의 '꾼'으로서가 아니라 '실력'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진정한 의미의 대학 개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교수들은 총선은 총장 선거처럼 치러져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장하진/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강사를 지내고, 현재는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1950년대 한국 사회구조에 관한 계급론적 연구", "여성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 "성별 직무 분리에 대한 노동과정의 연구" 외 다수를 발표하였다.